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통합교육 현황과

정책 제안

강 기 정(백석대학교 기독교복지학과 교수)

강 복 정(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다문화가족본부장)

I. 들어가며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 내 체류외국인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종래 단순기능 종사자 중심에서 결혼이민자, 유학생, 투자가 등으로 체류유형, 출신국가·민족 등이 매우 다양화되었다. '201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을 조사하여 결과를 발표한 행정안전부 다문화사회지원팀의 보도자료(2012.8.10)에 의하면, '12.1.1 기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수는 1,409,577명으로, 이는 주민등록인구의 2.8%이다. 특히, 다문화적 지역사회 구성원 중 정주자에 해당하는 결혼이민자(144,214명;10.2%), 혼인귀화자(76,473명;5.4%), 외국인주민 자녀(168,583명; 12%)는 전체 389,270명으로, 외국인주민의 27.6%를 차지한다.

충청남도(여성가족정책관실 다문화계)에 따르면, 충남도내 15개 시·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64,642명으로, 주민등록인구대비 3.20%를 기록하며, 서울(4.0%), 경기(3.6%)에 이어 3위를 차지한다. 국제결혼관련 이민자와 자녀는 20,308명으로 전체의 32.99%를 차지한다.

국제결혼으로 형성된 다문화 가족의 대부분은 문화의 차이, 언어문제, 경제적 어려움, 자녀양육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강기정, 2011). 특히 결혼중개업자에 의한 결혼은 다문화 가족의 적응에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하며, 다양한 인권침해의 상황들을 발생하고 있다(08.2. 베트남 결혼이민 여성 켄탄란 투신, 09.2. 캄보디아 여성 폭력남편 우발적 살해, 10.7. 정신질환 남편에게 살해된 탁티 황옥). 다문화 가족의 부부 폭력은 47.7%로 한국인 가정 40.3%보다 높은 편이며, 폭력 유형에서 신체적 폭력과 경제적 폭력이 한국인 가정보다 높은 수준이며, 다문화 가족의 이혼건수가 11,697건으로 증가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보건복지가족부 외, 2010)에 의하면, 다문화가족 부모의 사회·경제적 취약성은 자녀의 언어·학습능력 지체로 인한 교육의 양극화를 야기, 빈곤의 대물림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언어·문화 차이, 저소득 등으로 가족 내 통합이 어렵고, 사회적 소외 및 자녀의 언어·학습능력 발달 등에 어려움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결혼이민자와 배우자 사이에 큰 연령 차이를 보이고 있다. 충남지역실태(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08; 2010) 결과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들의 전반적 만족도는 높아도 45%가량의 여성들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어 정신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문화가족의 가정폭력이 여러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열악한 자녀양육여건 속의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관계상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다문화가정이 상당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한국 남성 배우자는 결혼생활에서 서로의 권한과 역할,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문화적 차이를 둘러싼 갈등을 경험하며, 이는 부부간의 갈등을 넘어 부계가족의 원리를 이어받아 집안 며느리를 들인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비화되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가족 내의 부적응으로 인한 갈등 뿐 아니라 우리사회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주변의 편견으로 인하여 심리적 압박과 사회관계에 대한 부담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들 다문화 가족의 다양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다문화 가족의 통합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수행을 위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07.7)』,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08.6)』, 『다문화가족지원법(‘08.9)』, 『외국인주민지원 조례(‘09.206개)』 등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정부 부처별로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08.11 보건복지부),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08.12 외국인정책위원회),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방안(‘08.10 교과부) 등 대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총괄·조정을 위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09.12)」를 구성하여 추진체계를 확립하였다. 2012년 현재 총 200개소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치되어 다문화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에 대한 정책과 서비스는 한국사회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 법적 근거와 전달체계는 단시간 내에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화시키려는 노력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충남지역 거주 결혼이민자의 경우 거주 인구대비 비율측면에서 전국 3위인 점을 고려할 때, 전국과 충남지역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를 조사분석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본고는 충남지역 다문화가정의 행복과 안정,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문화가정이 안고 있는 가족 간의 갈등을 예방하거나 문제해결능력 강화가 필요하는 입장에서, 충청남도 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되는 가족통합교육프로그램 운영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안 모색하여 정책방향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의 결과는 향후 관련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구체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운영 모델 및 충남의 특성화 사업 발굴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연구내용

-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가족통합교육서비스의 전국대비 충남 현황은 어떠한가?
- 2) 충남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무자의 다문화가족통합교육 운영 경험은 어떠한가?

3.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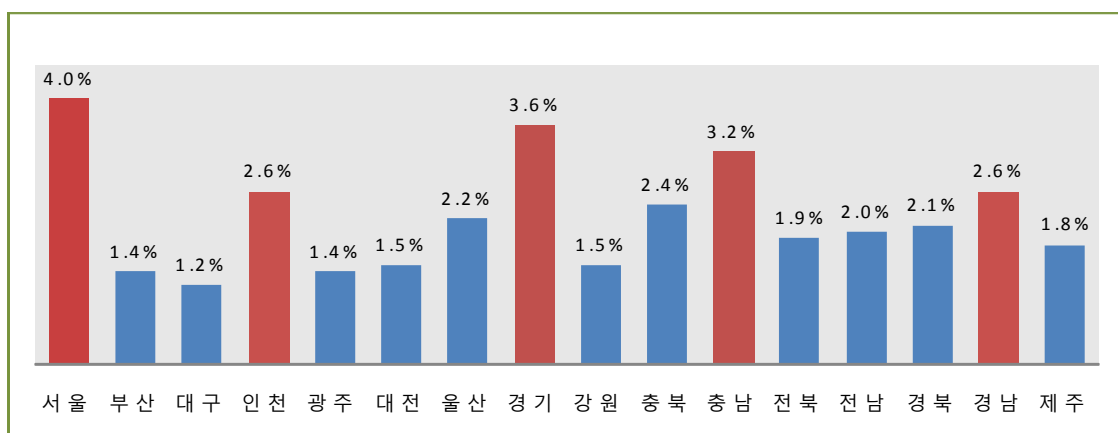
2011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통합교육서비스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사업운영실적보고서를 1차 자료로 활용하여 연구문제에 포커싱하여 재구성하였다.

이화정(2005)의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를 기초로 충청남도 내 14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가족통합교육 운영 현황과 경험을 분석하기 위해 반구조화 설문지를 개발하였고 센터 실무자 2인을 통해 보완 수정하였다. 2012년 10월 12일부터 10월 17일까지 센터의 가족통합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E-mail을 통한 반구조화 설문지를 발송후 14센터 전체에서 사전자료를 점검하게 하였고, 전체 가 한자리에 모여 각 주제별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실무자 입장에서 내용은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강사, 교육시기, 교육시수, 홍보, 참가여도, 만족도 및 효과, 예산 등을 포함하였다.

II. 다문화가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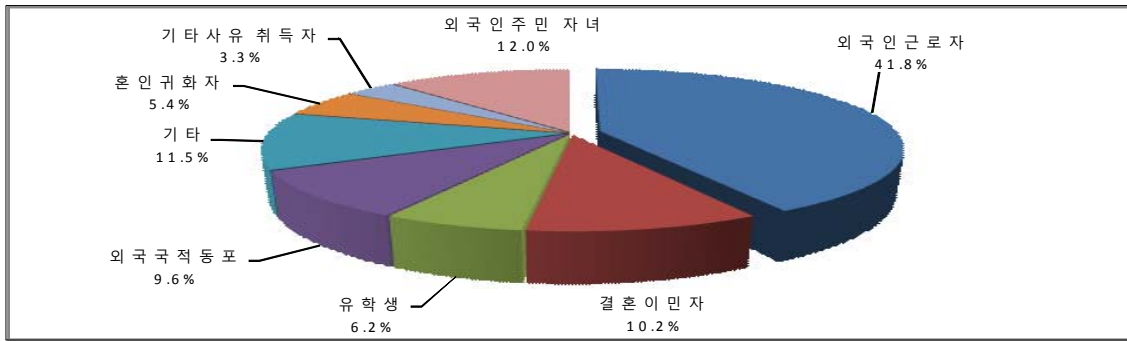
1.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 일반 현황

'201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을 조사하여 결과를 발표한 행정안전부 다문화사회지원팀의 보도자료(2012.8.10)에 의하면, '12.1.1기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수는 1,409,577명으로, 이는 주민등록인구의 2.8%이다.



<그림 1> 시도별 외국인주민 비율(%)

특히, 다문화적 지역사회 구성원 중 정주자에 해당하는 결혼이민자(144,214명;10.2%), 혼인귀화자(76,473명;5.4%), 외국인주민 자녀(168,583명; 12%)는 전체 389,270명으로, 외국인주민의 27.6%를 차지한다.



<그림 2> 외국인주민 유형별 현황

충청남도(여성가족정책관실 다문화계)에 따르면, 충청남도내 15개 시·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64,642명이다. 유형별로는 외국인근로자(29,108명, 45%)> 결혼이민자(7,117, 11%) 및 혼인귀화자(3,552명, 5.49%) 총 10,669명(16.5%)> 외국인주민 자녀(9,637명, 14.9%) 순으로 나타난다. 국제결혼 관련 이민자와 자녀는 20,308명으로 전체의 32.99%를 차지한다.

특히, 충남 거주 결혼이주자의 경우, 거주 인구 대비 비율 측면에서 전국 1위(0.53%)로 나타나고 있다. 거주 지역별 수로는 천안(2,515명)>아산(1,689명)>당진(933명) 순으로 전체 외국인주민 분포 현황에 비례하며, 출신국가로는 중국(4,663명)> 베트남(3,175명)>필리핀(1,103명) 순이다.

충남 외국인주민 자녀는 9,637명으로 나타나며, 거주지역별로 천안(2,033명)>아산(1,238명)>당진(917명)순으로 나타난다. 연령별로는 6세 이하(6,303명, 65.4%)> 7-12세(2,105명, 21.84%)> 13-15세(809명, 8.39%)> 16-18세(420명, 4.35%) 순으로 나타나며, 미취학기 자녀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취학기 자녀 역시 증가하여 35%에 달한다.

2. 다문화가족 생활 실태

충남에서는 결혼을 통한 이주 및 정주자 비율이 높은 만큼 지역 인구구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들 가정 가족구성원들의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화합과 안정이 지역의 안정과 발전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크다고 볼 수 있다.

같은 문화권에서 성장한 두 남녀가 결혼을 하고 가족을 이루는 경우에도 상호 가치관, 생활방식, 의사소통 등 다양한 갈등으로 결혼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만나 가정을 형성하고 살아가는 과정은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더욱 발전적인 문화를 창조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언어와 문화, 가치관(성평등 의식, 성역할, 가족관, 자녀양육관 등) 차이 등에 기이한 부부간, 가족 간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

충남의 다문화가정 역시 여러 가지 가족관계상의 어려움을 겪으며 살고 있다. 2009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2010년에는 결과보고서를 발간한 『2009년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관계부처 합동)』 결과에 의하면, 충남은 4,300명이 조사에 응하였는데(여 4,242, 남 58), 충남 응답결과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배우자 만족도나 결혼생활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편으로 응답하였으나, 언어나 경제적 어려움과 외로움, 낮은 가구소득과 낮은 취업률, 차별경험 등은 가족관계상의 갈등을 초래할 소지를 안고 있다.

<표 1>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 조사(관계부처 합동) 결과 총남부분 요약(2009년)

질문	응답 결과
입국시기	2005년 이후 입국자가 절반 이상
연령	29세 이하가 43%
연령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 연령차는 11.7세 - 캄보디아 커플은 17.8세 - 베트남 부부는 16.6세 - 필리핀 12.3세 - 몽골은 12세 차이
학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은 중졸 28.5%, 고졸 39.2%, 대졸 20.5% ▶ 남성은 중졸 20.5%, 고졸 32.7%, 대졸 41.8%
거주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은 75%가량이 읍면 거주 ▶ 남성은 절반가량만 읍면 거주
국적취득여부	29%정도 국적 취득
국적취득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적 미취득자 중 - 여성은 76%정도가 취득 예정 - 남성은 55.5% 취득 예정 아님
주거여건	주거여건이 열악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3%정도
장애등록가족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중 등록 장애인이 있는 경우 19.5% - 여자 경우 19.7%, 남자 경우 7.3% ▶ 이 중 배우자인 경우가 41.2%
가구소득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이 52%
본인취업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31.1% ▶ 남성 73.7%
배우자취업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인 남편의 취업률은 87.4% ▶ 한국인 아내의 취업률은 42.9%
결혼생활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생활 불만족도는 여성 6.5%, 남성 10%임 ▶ 결혼생활에 대체로 만족
배우자관계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관계 불만도는 4.6%, ▶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불만도는 6.8% - 불만도 보이는 것은 대부분 여자의 경우 - 남자 경우 불만도 매우 낮음
자녀관계만족도	▶ 5점 만점에서 4.39로, 대체로 만족하는 편
자녀 돌봄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취학 자녀 혼자 있는 경우 2.1% ▶ 초등생 자녀 방과 후 혼자 시간 보내는 경우가 15.7%
한국인과의 국제결혼추천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인과의 국제결혼 반대의견 표명자가 14.9% - 여자가 15%, 남자가 7.2%로 여자가 더 부정적
차별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별 대우 경험 비율 31.9% - 여자 31.7%, 남자 43.9%로 남자 차별 경험비율이 높음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자는 경제>차별 순으로 어려워 함 ▶ 여자는 언어>경제>외로움 순으로 어려워 함
한국어구사	여성 보다 남성이 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인터넷 활용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활용률 60.3% - 한국인 일반의 경우 77.6%

다문화가족관계 주요전망에 대한 연구(김이선 외, 2011)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의 긍정적 면모 구현을 위한 정책수요가 부상하고, 다양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며,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한 가족위기 대응에 대한 요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한 정책과제로 평등하고 민주적인 다문화가족 구현, 다양성이 존중되는 가족문화 조성, 다문화가족 위기 예방 및 초기 개입 체계 마련,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충남지역 다문화가족통합교육의 운영현황을 점검해봄으로써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점이 매우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Ⅲ.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통합교육 운영 현황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가족통합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2011년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실적보고서를 기초로, 2011년 운영실적을 다문화가족통합교육의 사업목적, 사업내용(지침/2011년), 사업운영, 추진성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 다문화가족통합교육 개요

다문화가족통합교육은 다문화가족구성원 간 가족 내 역할 및 가족문화에 대한 이해력 향상과 가족 친밀도를 향상하며 결속력 강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가족, 배우자, 부부, 자녀 등 대상을 세분화하여 맞춤형 교육 제공을 제공하고 있다.

2011년 다문화가족통합교육은 가족통합교육, 배우자·부부교육, 자녀지원, 사회통합 한국사회이해과정 4개 세부영역이 있다. 가족통합교육은 다문화가족 문화프로그램 체험, 법률과 인권교육, 한국사회적응교육, 한국문화이해하기, 다문화이해교육, 결혼과 가족의 이해, 가족관계향상프로그램 등으로 세분화 되었다. 배우자·부부교육은 부부관계 향상프로그램, 배우자교육, 부부상담, 국제결혼행복프로그램 등으로 세분화되었고, 자녀지원은 자녀학습 및 생활지도, 부모자녀관계향상프로그램, 부모역할교육, 아버지교육 등으로 세분화되었다. 사회통합 한국사회이해과정은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사업연계에 의해 50여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되었다.

2. 다문화가족통합교육 운영 성과

(1) 주요프로그램 현황

다문화가족통합교육 총 프로그램 수는 4,325개가 진행되었으며, 가족통합교육이 2,765개, 배우자·부부교육 329개, 자녀지원 1,150개, 사회통합 한국사회이해과정 81개이다.

다문화가족통합프로그램 매뉴얼은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전국다문화가족지원단)에서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전문교육 강사를 양성하여 강사풀을 구축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DB를 통해 전국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제선정 및 대상에 따라 지역별특성을 고려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체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적절한 강사를 섭외하기도 하였다.

(2) 영역별 사업 총성과

다문화가족통합교육은 세부영역별 총 85,143시간 운영, 총 연인원 424,955명이 참여하였다. 가족통합교육의 이용자가 260,350명(61.2%)로 가장 많았으며, 진행시간도 43,761시간으로 가족통합교육이 가장 많이 진행되었다.

<표 2> 다문화가족통합교육 영역별 사업 총성과(전국)

(단위: 연인원 명, 시간, %)

사업 영역	세부사업영역		진행시간	연인원	비율
			85,143	424,955	100
다문화 가족통합 교육	다문화 가족 통합교육	가족통합교육	43,761	260,350	61.27
		배우자·부부교육	2,865	14,158	3.33
	자녀지원		33,479	133,690	31.46
	사회통합 한국사회이해과정		5,038	16,757	3.94

(3) 대상별 이용 현황

다문화가족통합교육 총 이용 실인원 71,572명 중 대상자별로 살펴보면, 결혼이민자가 40,689명(56.8%)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자녀 17,770명(24.8%), 배우자 10,569명(14.7%) 순으로 나타난다.

이 중 총남은 실인원 5,376명 중 결혼이민자가 3,220명(59.8%)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자녀 1,274명(23.6%), 배우자 655명(12.1%)순으로 나타난다.

<표 3> 다문화가족통합교육 대상별 이용현황(전국대비 충남)

(단위 : 실인원 명, %)

센터명	합계	결혼 이민자		배우자		시부모		자녀												친인척		기타		
								0~3세		4~7세		초등		중등		고등		고등 이상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200개소	71,572	40,467	222	181	10,388	1,416	364	2,879	2,883	3,187	3,209	2,419	2,436	198	182	68	71	138	101	139	48	347	230	
		40,689		10,569		1,780	17,770												187	577				
	100%	56.85		14.77		2.49	24.83												0.26	0.8				
충남	천안시	481	258	2	1	76	19	3	18	16	20	29	16	15	1	1	0	0	0	0	0	0	2	4
	공주시	377	193	0	3	67	17	1	30	19	10	19	7	6	1	0	0	0	1	0	0	0	3	0
	보령시	506	205	0	1	111	10	7	30	37	26	30	20	18	3	1	1	1	0	1	0	1	2	1
	아산시	478	195	1	1	18	0	0	39	23	64	75	28	27	4	0	1	0	0	0	1	0	1	0
	서산시	425	380	0	2	4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논산시	203	169	0	0	3	0	0	9	7	10	4	0	0	0	0	0	0	1	0	0	0	0	0
	금산군	145	88	0	0	18	0	0	4	8	4	4	13	5	1	0	0	0	0	0	0	0	0	0
	연기군	266	135	0	0	32	19	13	11	13	7	9	11	10	1	0	0	1	0	1	1	0	1	1
	부여군	225	182	0	0	42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서천군	248	97	0	0	52	13	3	20	17	16	12	6	10	0	1	0	0	1	0	0	0	0	0
	청양군	146	82	0	0	24	4	0	2	10	8	7	5	2	0	0	0	0	0	0	0	0	2	0
	홍성군	343	296	3	0	3	0	0	0	3	10	6	10	9	1	0	0	0	0	0	1	0	1	0
	예산군	440	170	0	0	55	49	27	25	22	29	27	15	15	2	4	0	0	0	0	0	0	0	0
	태안군	191	104	0	0	43	2	0	11	9	7	6	3	5	0	1	0	0	0	0	0	0	0	0
	당진시	902	653	7	1	59	10	6	47	45	27	23	11	8	0	0	0	0	2	1	0	0	2	0

(4) 출신국별 이용현황

다문화가족통합교육에 참여한 결혼이민자의 출신국 현황을 살펴보면,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가 15,802명(38.8%)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였으며, 중국 11,285명(27.7%), 필리핀 5,284명(12.9%) 순으로 나타난다.

충남은 전체 센터이용 결혼이민자 3,220명 중 베트남 출신이 1,241명(38.5%)으로 가장 많이 이

용하였으며, 중국 840명(26.0%), 필리핀 561명(17.4%)순으로 나타난다. 결혼이민자 이용률은 당진시 1,320명(40.9%), 홍성군 598명(18.5%), 천안시 520명(16.1%)순이다.

<표 4> 다문화가족통합교육 결혼이민자 출신국별 이용현황(전국 대비 총남)
(단위: 실인원 명, %)

센터명	합계	필리핀	베트남	중국	일본	태국	몽골	캄보디아	러시아	네팔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미얀마	기타
200개소	40,689	5,284	15,802	11,285	2,406	664	925	2,276	250	203	151	650	82	44	667
	100%	12.99	38.84	27.73	5.91	1.63	2.27	5.59	0.61	0.50	0.37	1.60	0.20	0.11	1.64
총남	3,220	561	1,241	840	146	68	60	161	13	12	14	60	8	3	33

IV. 충청남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통합교육 포커스 그룹 인터뷰 분석결과

2012년 10월 12일부터 10월 17일까지 센터의 가족통합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전체가 한자리에 모여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내용은 교육대상, 교육환경, 교육강사 영역에 따라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5> 와 같다.

<표 5> 충청남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통합교육 포커스 인터뷰

영역	주제	의미의 통합
교육대상	가족대상 기획 및 실행	가족 전체 대상으로 기획 결혼이민자 대상 기획 남편 대상 기획 부부 대상 기획 시부모 대상 기획
	가족의 교육에 대한 소극적 태도	교육에 대한 인식이 낮아요 교육보다는 생계가 우선 남편과 시어머니 교육 부담스러워해요
	결혼이민자 주로 참여	결혼이민자가 가장 많이 참여해요. 결혼이민자는 언어소통 어려워요 남편과 같이 참여하고 싶어해요
	남편, 시어머니 참여 어려움	남편이 참여하기를 거부해요 시어머니 참여 싫다고 해요
교육강사	전문강사 섭외 진행	지침에 맞는 전문 강사 진행 강사 섭외 어려움
	다문화가정 이해 부족	다문화가정 특성 이해도 낮아 어려움 지역특성(군 및 시단위) 고려 필요

<표 5> 계속

영역	주제	의미의 통합
교육강사	가족통합교육안 필요	지역특성 맞는 교육매뉴얼 필요 시수와 회기에 대한 융통성 필요
	전문강사 양성과 인력풀 필요	지역사회의 전문강사 양성 전문강사 인력풀 구축과 관리
교육지원서비스	교육형태 및 방법	집합교육 형태
		찾아가는 교육 형태
		강의식에 대해 어려워 함
		체험식 강의 요구
	교육시기	연중 진행하려고 함
		지역에 따라 일정 시기에 편중되어 진행
		농어촌은 농번기 요구
	교육회기 및 이수시간	지침에 따라 운영
		가족상황과 요구에 맞는 진행 방안
		지역특성에 맞는 운영 방안
	교육홍보	다양한 방법의 홍보진행(인쇄매체, 언론, 통신기술, 지역사회 관계망활용 등)
		홍보 방법 개발과 공유 필요
지자체 차원의 홍보 방안 필요		
예산	예산 자체 부족한 편	
	예산 추가 요구됨	
교육만족도 및 효과	교육 참여자 만족도	참여자 만족도 높은 편 좋아다! 도움이 되었다!
	새로운 내용 배움	가족의 의미와 가족원 이해
		배우자/ 시부모/ 며느리에 대한 이해
가족구성원 긍정적 변화	교육이후 변했다. 좋아졌다	

(1) 교육 대상

현재 도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들에서는 결혼이민자, 이민자와 배우자, 이민자와 시부모, 부부 및 자녀 등 다문화가정의 여러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가족통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 교육운영에서는 대상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이유로는 인식의 문제, 생계의 문제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문화가족이 먼저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이해부족, 시부모님의 연세가 많거나 타 지역에 거주함으로 참여 불편, 배우자의 근로환경이 다양한

관계(2~교대, 야근) 참석 어려움, 배우자가 내성적인 성향, 또는 외부에 대한 자신노출 기피현상, 다문화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식부족 등”

특히 배우자 및 시부모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었다. 교육대상자들의 교육 참여 의사의 적극성 정도를 묻은 결과, 교육 참여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는 다문화가정이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가족통합교육은 다문화가정의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 시부모교육 분야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한국어교육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은 이제 자발적으로 오는 편이지만 그 외 교육에 대한 관심도는 저조”

“교육에 대한 인지가 깊지 않으므로 필요에 의해 참여보다는 권유에 의한 참여”

“남편들이 직장생활 및 센터로 참여하는 것에 대한 몰이해로 인하여 센터프로그램 참여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아 참여도가 낮음”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는 “이해부족과 흥미 부족”, “한국어 미숙 및 이해도 부족”, “‘그냥 살면 되지’라는 안일한 사고방식이 팽배하기 때문에”, “생계로 인한 참여 기회 제한” 등 인식요인과 언어문제, 생계로 인한 참여 기회 제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미와 문화체험은 참여에 적극적이지만 부부, 가족교육, 이해교육, 자녀교육은 배우자들이 필요성을 못 느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의식개선을 해가고 있으나 더 많은 가족교육을 참여하도록 다른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봄.”

“그 밖에 언어의 이해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부부교육, 다문화 이해교육을 받으면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계속 들어야하는 상황이라 지루함을 느끼고 어려워함”

농어촌의 경우에는 이에 더해 지역 센터로 부터의 먼 거리 및 대중교통 부족 등 지역의 기초 인프라 부족 여건이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지역의 인식수준과 산업특성, 교통 등 생활여건을 감안한 교육기획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차가 없으면 나오기 힘든 지역이 많아 차 없는 사람은 참여하지 못함. 농촌이라는 점도 장애 요인임” “교통여건의 문제로 오후에 하는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움.(대중교통이 부족하며, 지리적 특성상 센터와의 거리가 상당함“

(2) 교육강사

현재 투입되는 강사의 전문성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 일부지역에 강사섭외의 어려움을 겪고는 있으나 지침에 따른 자격기준 검증을 거쳐 교육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 지침에 정해진 시간으로 인해 그 지역과 센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불편함이 있으며, 지역특성상 전문 강사 섭외가 어려움. 교수자는 전문적이거나 학생의 수준은 유치원수준인데 이해도가 당연히 떨어진다고 봄. 그러므로 전문 강사의 강의나 만족도의 효율성이 낮음.”

“가족통합관련 전문가가 각 센터를 회기별로 센터별 직접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거점센터에 강사 인력풀이 있어서, 교육을 진행하면서 강사섭외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으면 좋겠음.”

이것은 교육대상자의 언어와 지식수준, 관심과 흥미 정도를 고려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인해 강의 교육이 회피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전문강사의 교육 세부 내용과 방식 등에 대한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전문강사 양성과 파견 등 정책적 개입 역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교육지원서비스

1) 교육 형태 및 방법

효과가 높은 교육 형태로는 문화체험과 여행, 캠프, 견학, 원예활동, 가족앨범 만들기 등 참여·체험 형태 교육의 효과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것은 지적 부담 혹은 언어적 부담이 없이 진행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민자가 느끼기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실생활에서 활용이 가능한 교육은(요리교실, 한국문화체험) 의지도 높고 참여도 또한 높게 나타남.”

“이는 활동형 프로그램으로 말이 통하지 않아도 가족 전원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임.”

“활동을 겸한 교육이 실행되어야 할 것임. 그런 커리큘럼이라던지 프로그램 제안서가 나왔으면 좋겠음.”

이외에도 어린자녀 동반시 부모의 교육집중이 어려운 만큼, 동반자녀 돌봄 혹은 자녀프로그램을 동시에 가동하는 등 보다 세심한 교육기회 및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녀의 참여로 부부프로그램에 차질이 빚어지는 만큼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방법 필요”

따라서 교육방법과 관련하여 주입식 강의 및 집합교육 기획 시 대상자 편의 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이며,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의 눈높이와 한국어구사능력, 동반자녀와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교육 장소 및 교육 시기

교육장소의 경우, 많은 지역에서 접근성과 교통여건, 날씨변화 등을 감안한 찾아가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개선방안으로 제안하였다.

“집합교육을 할 경우, 많은 대상자들이 참여가 어려움. 지리적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들을 위해 거점 지역을 마련,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하여 더 많은 대상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지리적으로 내방이 어려운 회원들을 직접 찾아가거나 지역읍면단위로 방문하는 사업으로 실시하여 효과성을 높임”

교육시기의 경우, 농어촌의 경우에는 농한기에 중요한 교육 특히, 부부이해교육 등을 실시하고자 신경 쓰고 있었으며, 배우자의 참가를 용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주말이나 저녁 시간대에 교육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농한기에 교육을 추진하기에는 회계행정 절차상 어려움이 예상되며, 특정 시기 교육 집중은 추진 담당자의 업무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

“농번기를 피해야 하는데 농한기는 12월, 1월이란 교육을 하기가 어려움”

“프로그램이 특정 월에 몰리는 경우가 많음.(지역 특성상 농번기 및 어획기, 피서철 영향)”

“실제 다문화센터 실무자들의 경우 주5일 수업실시에 따른 토요일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피하며 각종 행사 추진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

이는 교육담당자의 심리적, 신체적 부담 정도와 처우 등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사기를 진작할 방안 역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센터직원의 다수가 도내 여성인적자원임을 고려하여 센터직원들의 건강은 물론 일·가정 양립 역시 위협 받지 않도록 정부와 지역사회가 모두 관심 가져야 할 것이다.

3) 교육 회기 및 이수시간

교육이수시간 및 회기와 관련하여, 정해진 지침대로 지역에서 교육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교육별로 정해진 시수가 지역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지역별 특성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었다.

“가족교육의 지침상 정해진 시간이 있어 농촌지역은 시간을 채우기가 어려움”

“가족통합교육 시간이 지역에 맞게 정해져 있으면 좋겠음. 농촌지역은 인원동원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방법으로 운영한다 해도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가정이 많아 어려움”

“현재도 단위프로그램별로 상이한 회기와 시간으로 운영되는 만큼 프로그램 특성에 따른 탄력적 운영이 필요함”

특히 회기의 경우, 1회성 교육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커리큘럼에 따라 교육이 단계적으로 지속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국어교육처럼 장기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체제 내에서 교육이 진행되고 시간, 회기를 편성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가족통합교육은 단기적인 교육효과를 보이기에는 무리가 있는 분야이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가족구성원 스스로의 인식변화를 이끌어 내는 계기와 촉매제로서의 역할이 큼.”

“가족통합교육에 대한 교재를 발간, 영역별 다문화 관련 교재가 개발 보급되어 원활한 교육이 진행되었으면 함”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겨울철교육이 가능하도록 이른 예산 확보, 이수시간 조정 같은 교육 운영의 자율성 확대 등 행정상의 절차 및 중앙사업지침상의 조정과 더불어 교육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이나 세부 프로그램 개발 등 관련 연구가 필수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4) 교육 홍보방법

홍보 및 교육 참여 권유방식으로는 인터넷 홈페이지, 페이스북, 신문, 전화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고 있었다. 특히 “젊은 다문화여성들을 겨냥하여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카카오톡이나 또는 센터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를 진행하는 곳도 있었다. 또한 방문지도사나 자모모임 대표, 사회복지사, 결혼이민자, 이장단 등 지역사회와의 인적관계망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각 나라별 자조 모임 단 임원들과 의논하고 연락망 구축하여 참여를 권장하며 16개면에 대한 사회복지사에게 공문을 보내 홍보와 참여를 권함. 또한 방문지도사들에게 대상자 정의 이해를 시켜 홍보와 참여를 필요”

“이장단 회의 참석하여 각 읍면단위별 홍보필요”

“한국어교육 각 단계별 반에 통번역사, 자국인서포터즈를 통하여 홍보필요”

향후 개선점으로는 “DB자체에 문자 전송 서비스를 구축”, “교육일정에 대한 내용 사전 공지”, “월별 일정에 고정적으로 배치하는 안” 등이 제안되었다. 지역 간 홍보방식의 공유기회 제공이나 도차원의 홍보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예산

투입된 예산의 적절성과 효과를 묻은 결과, 예산 자체는 부족한 편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지역의 다른 기관들과 연계사업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 아쉬움으로 남겨 두고 있었다.

“80시간 교육진행에 대한 예산은 대체적으로 부족한 편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예산 분배의 어려움과 분산된 사업비는 효과성을 내기에 힘들”

“투입된 예산이 많지 않아 예산 대비 효과는 있다고 보임”

“예산에 비해 참여 대상자들은 만족도가 높은 편임”

가족통합교육 운영 영역과 시수 혹은 예산을 조정하거나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 등 예산문제의 검토가 필요하다.

(4) 다문화가족 교육 참석자의 교육내용 공감도 및 만족도

교육 참여자들의 교육에 대한 공감 정도를 묻은 결과, 교육의 방식과 내용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 교육방법 관련 질문에 대한 응답과 유사하게 강의식 교육 보다는 체험위주 교육에 더 공감하고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교육마다 다르나 체험위주 일 때 공감대가 큼”

“체험일 때는 적극적이나 주입식 강의일 때는 방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함”

“체험위주교육일 때 공감대가 크며, 센터에서 배운 것을 집에 가서 적용하는 다문화여성들이 있다고 함.”

“체험분야의 교육은 충분한 효과성을 느끼나 교육만을 이루어진 프로는 아쉬움이 있음”

“주입식 교육 보다는 아직까지 활동적 측면을 더 호평하고 있음.”

이때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언어장벽이 공감도 형성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며, 언어문제 해결을 위해 센터 측에서 더욱 고민하고 배려해야 교육효과 달성이 가능한 상황이다.

“언어소통의 미흡으로 충분한 교육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함.”

“결혼이민자의 경우 교육내용에 대한 이해를 위해 자국어인 서포터즈를 배치하여 수강을 지원하므로 이해가 된다고 함”

“강사의뢰 시 눈높이(언어, 문화인식)에 맞는 교육지도로 시각효과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제안함으로 반응이 좋음”

실제 교육의 효과에 대한 교육담당자들의 의견을 묻은 결과, 교육에 참여한 가족들의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물론 다른 다문화가족 등 이웃과의 관계와 태도, 인식에 있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교육 참여 후 배우자나 시부모들의 태도가 달라지거나 잘 해준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교육시간이 만족스럽다는 내용이 많이 나옴.”

“교육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어려움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여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가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정보의 습득을 하는 기회가 됨.”

특히, 배우자나 시부모의 경우, 교육 전후의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보고되었다.

“배우자의 경우 다문화는 물론 부부관계, 자녀양육에 따른 아버지로서의 역할 등 전반적인 교육에 노출되지 못한 환경이었기에 지속적인 교육을 받고 싶다는 말을 하면서 부인에 대한 교육을 심화해 달라는 당부도 함”

“시부모님이 함께 참석했을 경우 며느리 덕분에 귀한 경험을 해서 기분이 좋다는 말씀을 하셨고 교육도 잘 가르쳐 주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빠뜨리지 않음 또 며느리의 낮잠, 게으름에 대한 것이 개인의 습관이 아니라 그 나라 환경의 영향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며느리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더 알려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심”

교육을 통해 이와 같은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유도한 전국 및 도내 우수 교육 프로그램 성과 발굴 및 확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및 제언

다문화가족통합교육 운영 현황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무자들로부터 가족통합교육 관련 제언 및 건의사항들을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국제결혼 희망가족 사전교육 내실화

다문화가족 정책 사업을 담당하는 현장 센터들에서는 사전교육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보완을 계속해 나가야한다.

“국제결혼에 대한 희망적인 미래 뿐 아니라 결혼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예비 사전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국제결혼 절차상에서 부부교육 혹은 배우자 교육 등을 강화하여 다문화가족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갈등 상황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교육 필요함”

(2) 지자체 차원의 가족교육 중요성 홍보강화

일반 성인들, 특히 남성 배우자들의 교육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지자체차원에서 인식전환 운동 및 홍보를 기획하고 전개하여 자발적 교육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교육이라는 것에 대한 농촌 어르신과 남편들의 인식을 바꾸기가 어려움.”

“가족통합교육의 효과성을 증대하기 위하여서는 가족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함. 때문에 도차원에서 이러한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속적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인센티브적 등을인 측면을 개발한다면 지속적 교육에 대한 참여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지역특성을 고려한 가족통합교육 운영 방안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시기, 교육방법, 교육내용을 진행할 것이 필요하다. 신규 대상자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다문화가족이 가족교육 1회 참여로 그 효과를 크게 보기 어려우므로 다양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4) 교육담당 실무자 교육기획 및 추진 역량강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 담당자의 역량이 가족교육의 기획부터 운영과 환류 등 사업전반에 걸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담당 실무자 역량강화를 위한 내실 있는 전문적인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강기정(2011).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활성화 방안-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문화 사례 연구. 4권 2호.
- 강복정(2012). 한국의 다문화가족정책 및 서비스현황 분석. 다문화사회연구.
- 계선자 · 이연숙 · 차성란 · 장명선 · 이영호 · 강기정 · 김연화 · 강복정 · 김향은(2010). 『다문화 사회의 이해』. 서울:신정.
- 김승권 · 김유경 · 강복정 · 신숙자 · 최준영(2010). 『다문화가족 교육관계자 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연구』. 서울:한국교육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이선 · 마경희 · 선보영 · 최호립 · 이소영a(2010). 『다문화가족의 해체문제와 정책과제』. 서울:여성가족부.
- 김이선 · 황정임 · 주유선(2011).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중장기 발전방향 및 실행계획연구 : 기본계획안 수립 연구를 중심으로』. 서울:여성가족부.
- 법무부(2011). 『2011 외국인정책 관계부처 합동설명회 자료집』. 법무부 · 행정안전부 · 고용노동부 · 여성가족부. 15-26.
- 보건복지가족부 · 법무부 · 여성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설동훈, 강기정, 이병하. 2011.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관련 정책과제 개발 및 발전방안 연구』. 서울:여성가족부.
-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다문화계 내부자료. 2012.
- 충남여성정책개발원(2008). 『충남 국제결혼가정 여성결혼이민자 적응 실태』
- 충남여성정책개발원(2010). 『한 · 일 다문화가족 공동연구-충남 다문화가족 가정폭력 실태 및 가족

형성 지원 정책 연구」

- 여성가족부a(2011).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 2011년 시행계획』 서울: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d(2011). 『2011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 서울:여성가족부.
- 이재분 · 김혜영 · 이해영(2009).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합적 교육지원방안 탐색 및 프로그램 개발 (I): 다문화가족 교육지원 실태 · 요구분석 및 대응방안 탐색』. 서울:한국교육개발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2010). 『201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결과 보고서』.
-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2010). 『2009 출입국 · 외국인정책통계연보』.
- 통계청(2011). 2010년 혼인통계.
- 한국교육개발원(2009). 『다문화가족 역량계발을 위한 통합적 교육지원방안 모색』. 경제 · 인문사회 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9-21-02. 서울:한국교육개발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8). 『이주민관련 문화프로그램의 현황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인구의 양적 · 질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 서울:**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 행정안전부(2011). 『2011 외국인정책 관계부처 합동설명회 자료집』. **법무부 · 행정안전부 · 고용노동부 · 여성가족부**. 61-8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통합교육 현황과 정책 제안

오 윤 자(경희대학교 교수)

세간의 관심이 되었던 「완득이」를 통해서 더욱 구체적인 이해를 할 수 있었듯이 결혼이주로 형성된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은 매우 지대할 뿐 아니라 일반가족과 형태를 달리할 뿐인 다문화가족 역시 가족은 그 어느 것도 대신해 줄 수 없는 특별한 역량을 나타내 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반면, 관련된 여러 상황들에 기초해 볼 때, 개인과 가족과 사회나 국가는 가족의 그 강력한 힘을 명확하게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종종 들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다문화가족통합교육에 대한 관심은 특별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007년부터 중앙정부의 공식적인 기반이 형성되기 시작한 바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은 그 시기적인 측면에서 성찰의 기회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으며 여전히 소수집단으로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온정·시혜적인 분위기가 조성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현실적이며 대안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연구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다른 유형의 이주와는 달리, 결혼이주의 의미가 가족생활이 기반이므로 다문화가족통합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종종 주장되면서도 선언적 차원을 넘어서지 못했던 지역특성화에 초점을 둔 현황 및 정책 방향의 탐색을 시도하고 있는 점에서 매우 중차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의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므로서 다문화가족교육 및 현장 실천에 기여가 더욱 클 것으로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토론자로서의 충실한 역할수행을 위하여 의견을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충남지역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배경설명이 다소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거주 인구대비 전국 3위인 지역으로 서술하고 있으나, 이는 소수 거주지역 연구의 가능성은 희박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동시에 3위 밀집지역은 오히려 도시정책적인 의미를 우선적으로 가질 수 있음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인용한 내용들에서 알 수 있듯이 2009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통해서 이미 전국단위 및 지역 중심으로 유사한 내용들이

진행되었으므로 이 결과와의 연결 또는 차이를 어떻게 두고자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거주 전국 3위 밀집지역으로서의 가족통합교육 연구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특성을 탐색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우선순위 밀집지역은 양면성을 가질 수 있는 바, 즉, 쉽게 정착하고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도울 수 있기도 한 반면, 비다문화 측면과의 단절을 고착화하여 사회통합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기도 하다. 또한, 대한민국 수도로서의 서울, 다문화가족 거주 1순위인 경기 지역, 다문화가족 형성 초기시기부터 적극적인 지원으로 대처한 경북 지역 이외의 다문화가족과 관련 충남지역의 다차원적인 특성이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충남지역 대상 연구의 기반이 적절하게 발견될 수 있는 연구목적, 연구내용, 연구방법, 연구결과 및 정책 제언으로의 재구조화가 이루어지므로 본 연구의 의미와 가치가 충분히 발현될 것으로 본다.

둘째, 제시된 연구목적, 연구내용, 연구방법이 본 연구의 전체적인 맥락이나 전개된 내용들과 다소 독립적으로 전개되고 있을 뿐 아니라 연구방법 역시 논리적 맥락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먼저 연구목적에서 밝힌 입장(~다문화가정의 행복과 안정,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문화가정이 안고 있는 가족 간의 갈등을 예방하거나 문제해결능력 강화가 필요하는 입장에서~)에 기초할 경우에는 다문화가족통합교육 보다는 개인·가족상담에 대한 연구가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연구내용에서 충남 현황은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연간보고서에 이미 발표가 된 내용으로 짐작이 되며 현황이나 실태를 열거하고 있을 뿐 이것이 무엇을 어떻게 의미하고 있는 지에 대한 보다 분석적이며 구체적인 사실 및 논리가 맞춰지는 것이 본 연구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제시하는 과정일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실무자 운영경험은 서론 등에서 전혀 논의가 되고 있지 않던 중에 서술되었으므로 다문화가족통합교육에 있어서 현장실무자의 운영경험이 어떻게 해서 무엇 때문에 포함되어야 하며 본 연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지 등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수반되므로 본 논문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관련하여 연구방법에 있어서 반구조화된 질문지는 제작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심층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대상자에 대한 정보 역시 단지 현장실무자라고 빈약하게 밝혀져 있으므로 어떤 배경정보를 가진 대상인가를 서술해야 할 것이다(<표 1> 참조).

<표 1> 심층면접조사 대상자 현장실무자

번호	성별	연령	학력	주업무	해당업무경력	자격증 소지	근무지역
1	여	56	대학원졸	센터 총괄	7년	건강가정사 가족생활교육사 다문화강사	대도시 (A기관)
2	남	35	대졸	방문교육	2년	사회복지사 가족폭력상담사 다문화강사	중소도시 (C기관)
.

그리고, 이는 연구내용 2)와 관련해 볼 때, 「현장실무자가 인식하고 있는 충남 다문화가족통합교육 운영 현황-교육대상, 교육강사, 교육지원서비스, 교육만족도 및 효과-은 어떠한가」 등의 수정으로 연구 의미의 적합성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의 결과로 제시된 내용들도 인터뷰 내용과 인터뷰어 매칭 표기를 통해서 명확한 사실적 근거를 제시하므로서 자료의 객관성, 독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사례예시 1> 참조).

<사례 예시 1>

자녀의 참여로 부부프로그램에 차질이 빚어지는 만큼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방법 필요 <A기관 1>

이와같이, 연구의 구조적인 형식 및 과정에 맞춰서 해당 내용이 서술되어야 하는데 이런 맥락이 다소 축약 또는 간과된 것으로 이해가 된다.

셋째, 다문화가족통합교육 운영 현황에 있어서, 다문화가족통합교육 개요가 서술된 2011년 다문화가족통합교육의 세부영역 구분 근거가 궁급하며, 이는 오해의 여지를 가질 수 있다. 여성가족부의 「2011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 22쪽의 설명에 의하면 아래 <표 2>와 같이 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의 내용은, 2011년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사업운영실적보고서를 1차 자료로 활용하였으므로 기타영역에 해당되는 것까지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해는 가능하나 사업안내에 근거하지 않은 분류를 제시하므로서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표 2> 2011년 다문화가족통합교육 과정

세부영역	내용		운영시간
다문화 가족통합교육	가족통합 교육	-다문화이해교육 -결혼과 가족의 이해 -가족의사소통 프로그램 -가족의 의미와 역할	-법률과 인권교육 -한국사회적응교육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기타 연간 45시간 이상
	배우자·부부교육	-배우자이해프로그램, 부부관계향상프로그램	연간 5시간 이상
자녀지원	-자녀교육 프로그램 -부모-자녀관계 관계 및 자긍심 향상프로그램 -아버지교육 -자녀생활지도 등 기타	-부모역할교육	연간 30시간 이상
	사회통합이수제	-다문화이해교육 과정	

출처 : 여성가족부. 2011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 근거 재구성

또한 다문화가족통합교육에서 전국 총 성과나 대상별 이용 현황에서 나타난 결과는 전국단위와 동일한 특성(대상별 및 출신국가별 이용현황)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부연설명, 다른 지역과의 비교분석, 충남지역 다문화정책 등을 통해서 본 연구의 초점인 충남지역 내용이 서술되어야 마땅할 것으로 여겨진다.

넷째, 본 연구의 핵심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포커스인터뷰 결과에 있어서, <표 5> 바로 위의 설명에서는 교육대상, 교육환경, 교육강사 영역에 따라 분석하였다고 서술하였는데, <표 5>의 영역 분류 및 이후의 내용들에서는 이와는 달리 진행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정확한 검토 및 재해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은 물론 <표 5>에 제시된 영역, 주제, 의미의 통합 구성에 있어서 연구방법론적인 기술의 개입이 필요하다. 특히, 인터뷰 내용 제시 및 설명에 있어서 주로 일반론적인 내용으로 해석을 하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중심으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나타난 내용을 보완하여, 본 연구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현장실무자 중심 다문화가족통합교육의 현황을 정확하게 도출함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 포함된 결론에서의 정책적 함의 내용들은 기존에 무수한 다문화 논의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거론이 되어 온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본 연구를 통해서 탐색할 수 있는 정책 내지 실천기제를 논의함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본 연구의 제목이 현황과 정책 제안으로 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내용 및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기존의 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수립된 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충남지역의 다문화정책, 관련 정책보고서 등과의 맥락적인 검토를 통한 논의가 병행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한 역할일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논문으로서의 구조화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전반적으로 다분히 정책보고서 형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논문으로서의 논리적 전개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들면, 김이선 외의 인용 맥락, 주요 프로그램 현황에서의 주제선정 및 대상에 따라 지역별특성을 고려하여.... 식의 표현은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연구를 전개하고 있는 본 연구의 시점을 소홀히하는 서술로 이해할 수 있기도 하다. 예들들어, 용어통일, 표 제시방법, 참고문헌 등의 수정 보완의 과정이 본 연구를 위한 노력과 기대를 확장하는 기본요소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자들의 노고가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와 함께 이외의 내용들까지 포함하여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문화가족통합교육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으므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오늘의 기회에 감사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우리사회의 다문화현상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성숙한 단계라고 생각되지 않으며 단기간에 급증한 경우로서 우선 개인·가족적, 사회문화적, 정치제도적인 주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물질적, 사회적 및 인적자원의 토대가 마련되지 못한 상태로서 당분간 모두가 다문화구성원으로서의 지속적인 노력을 함께 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